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연구

주 은 옥

(관악고등학교 교사)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 새로이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사회과 선택과목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실무를 맡았던 교사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와 동일한 학교 여건 하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지정 과목이라는 하위 정책을 활용하였다. 학교 지정 과목의 선정과 학년 배정 및 이수 단위 수 등은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교과 담당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인 학기당 이수 과목 수의 기준은 포기되었다.

주제어 : 선택중심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학교 지정 과목, 학생 선택 과목

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제7차 교육과정은 도입 이전부터 교육계 안팎에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 논란의 핵심에 놓여 있던 문제 중 하나가 이른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다. 특히 사회과와 같이 여러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과와 경우에는 교과 내 영역 간의 이해의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등의 3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사회과의 심화 선택과목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경우, 학생의 선호에 교사의 공급을 맞출 수 있는가, 혹은 맞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편성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연구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된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각급 학교에서 현재 시행중인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분이다. 초등학교 1학년(10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교양과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등학교 2, 3학년(11, 12학년)에는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의 적성, 필요, 관심 등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특히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이수 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과연 교과목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며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반 사회, 역사, 지리 등의 여러 영역이 공존하는 사회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어느 한 영역에 편중되어 나타날 경우, 과연 그러한 현상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며 교사 수급과 교실 배정 및 시간표 편성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학교 밖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계 내의 반발에 대해 교사들이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교 내부의 반발과 학교 밖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 의도가 학교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해석되어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

둘째,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즉,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정 의도가 학교 교육과정에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2. 연구 방법

가. 사례 연구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담당 한 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수준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 대상

연구 사례로 선정된 김태훈 교사는 서울 강북의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인 한강고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던 교육과정 편성 실무자이다. 김 교사의 교직 경력은 약 12년이며, 전공은 일반 사회이다. 김 교사는 2001년 3월에 정기 전보로 한강고등학교에 전입하였으며, 전근 당시 학교장의 비공식적 승인 하에 사전에 그 학교로의 전입이 결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학교장의 희망을 반영하여 일부 전입 교사를 결정할 수 있다. 김 교사가 전근하기 이전에 한강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범학교’로 결정되어 있었고, 김 교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맡을 실무자로 선택되어 그 학교로 전근하게 된 것이다.

한강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로 볼 때 서울시 교육청 관내의 고등학교 중 중간 정도에 속한다.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학력 수준도 보통 수준이라 볼 수 있다.

2) 연구 대상 선정의 근거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김 교사와 한강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김 교사가 일반 사회를 전공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입장이 라는 점과 함께 한강고등학교가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범학교로서 학생 선택권의 존중이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 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이다.

괴츠와 르퐁뜨(Goetz & Lecompte, 1984: ch. 3; 조용환, 1999: 27에서 재인용)는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의 집단 특성에 따라 준거적 선택의 열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경우는 그 중에서 극단적 사례 선택(extreme case selection)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극단적 사례 선택은 모집단이 뚜렷이 양분되어 있거나 분포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을 때 양극단을 선택함으로써 대다수 중간 집단의 특성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사례 선택 방

법이다.

한강고등학교는 선택중심 시범학교로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사례에 해당한다. 연구자의 사전 조사에 의하면 어떤 학교는 형식적으로 학생 희망을 조사하여 학생 선택이 가장 많은 과목만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 사례이다. 그 같은 경우가 한강고등학교의 반대편 극단에 해당할 것이고, 대부분의 학교는 이 양극단의 스펙트럼 어디엔가 존재할 것이다.

한강고등학교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상 서울 시내의 평균 수준에 가깝다. 연구자는 보통의 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할 때 가능한 학교 교육과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의 한 단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문헌 연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준비를 위해 수행된 연구 과제와 시·도 교육청 발간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안내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자료의 검토는 고등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3년 초부터 진행되었다.

한편 실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사회과 선택 과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안내 자료와 학생 희망 조사를 위한 자료, 학교 교육 계획서 등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과 선택과목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실무를 맡았던 교사에 대해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녹음한 후 전사(transcript)하였다. 연구자는 전사한 면접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선택과목 선정에 위한 학생 희망 조사 과정, 새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및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의 상호 작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자료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2002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 편성 실무자와의 면담과 함께 넘겨받아 검토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연구 대상인 한강고등학교의 경우는 2003년 5월 1차례의 면접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수 차례 면담을 통해 자료의 이해를 꾀하였다.

면접은 미리 설정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반구조화 면접(semi-constructed interview)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에 포함된 질문은 교육과정 실무자의 결정 과정, 교육과정 편성 준비 작업, 선택 과목 선정을 위한 교과 협의회의 진행, 학생 희망 선택 과목 조사,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주요 고려 사항, 사회과 각 영역의 교사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과 상호작용,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차이, 이동 수업의 시행,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과정과의 비교, 교육과정계의 업무 성격 및 부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면접 내용은 2002년 연구자가 재직 중인 학교의 예비 조사 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 실무자와 수차례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성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로서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표집의 크기를 늘리게 되면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질적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무작정 늘릴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처럼 많은 사례를 유형별로 표집하여 연구할 때 연구자는 자칫하면 어설픈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양적 연구도 질적 연구도 아닌 연구를 하게 될 소지가 크다. 월코트(Wolcott, 1994: 180-184)는 네 사람을 연구하면 한 사람을 연구할 때보다 네 배의 지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한다. 질적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의 폭보다는 깊이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학교에서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이라는 교육 현상의 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교육이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실행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광범위한 연구도 물론 의미가 있겠으나, 이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 의도를 보통의 학교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모습을 통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국가 수준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부 위탁 연구 과제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1.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격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환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특징 및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 보충형, 그리고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즉,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실행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특징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즉,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5·31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교육과정 개선 원칙(교육개혁위원회, 1995: 49) 중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의 원칙과 ‘필수 과목 축소와 선택 과목 확대’의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35-37). 첫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능력과 흥미의 차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주는 방안이다.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한문,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외국어 등의 교과에서도 교과목을 수준에 따라 I 과 II로 구분하여 개설하였다. 그러나 I 과 II 중 어느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는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그 학생이 속한 ‘과정’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방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11, 12학년의 2년 동안 편성·운영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4단위로 특별 활동 8단위를 제외한 136단위가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다.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6단위 중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선택 비율은 최대 50%까지 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김재춘, 2000: 185).

둘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인문·사회 과정’이나 ‘자연 과정’ 등과 같은 제한된 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다양한 종류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진로에 따라 더욱 다양한 종류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침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54-57)는 다음과 같다.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교원의 조직, 학교의 여건 및 교육적 필요 등에 따라 다음 방법을 적절히 선택·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희망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도와야 한다.

(나)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어문 과정, 사회 과정, 이공 과정, 생화학 과정, 외국어 과정, 예·체능 과정, 직업 과정 등 필요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셋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의하면 각 교과별로 과목의 종류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보다 많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수준에서 볼 때,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의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함으로써 학교의 특성화를 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넷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과목에 대해 학습 영역의 폭을 좁혀 줌으로써 제한된 영역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상에서 선택교과는 통합과목의 성격을 띤 ‘인간사회와 환경(선택과목)’과목의 신설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여기에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과목을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과목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최병모, 2003: 94).

<표 1>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 편제

구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공통필수	선택과목	공통필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심화 선택
사회	공통 사회(8) 국사(6)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6), 세계지리(6)	사회10 (국사 4단위 포함)	인간사회와 환경(4)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 괄호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의 수를 의미함.

** 1단위는 17주 기준, 1학기의 수업 분량임.

위의 <표 1>에 제시된 사회과 선택 과목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몇 가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는 없던 일반 선택 과목이 신설되었다는 것과 함께 심화 선택 과목의 수와 단위 수에 있어 사회과 각 영역의 비중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목 수로 비교해 볼 때,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영역의 비중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3 : 1 : 1이던 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4 : 3 : 2로 바뀌었다. 단위 수로 비교할 때 역시 12 : 6 : 6에서 28 : 16 : 22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 영역의 활동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정에 대한 한 연구(이혁규, 2003: 17-64)에 의하면, 사회과 내의 하위 영역들은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여타 이익집단의 활동처럼 격렬하고 집요하며 조직적이다. 심화 선택 과목의 수나 종류의 결정 과정 역시 각 영역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도 각 영역의 이 같은 활동이 작용하였으리라는 점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Ⅲ. 학교 수준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실행

1.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사전 준비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1: 46).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두어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서류상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은 대부분 1-2명이다(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2: 19-21).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최초의 작업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결정하는 일이다. 제6차 교육과정 적용기에는 교무부장과 교무기획 교사가 이를 담당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부터는 선택 과목이 많아 교육과정 편성 작업이 방대해짐으로 인하여 교육과정계를

따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과정을 한 사람의 실무자가 편성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 과정을 관련 주체에게 얼마나 공개하고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참여시키는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강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범학교로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실무자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전 정보 수집 과정을 거쳐 김태훈 교사를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계로서 김 교사는 학생, 학부모, 특히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안내와 조사 작업, 그리고 교과 협의회를 주도하였으며, 시범학교 실무자로서 타 학교의 실무자를 소집한 서울시교육청 주최 회의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이는 수업과 담임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기에 매우 벅찬 일이었으며, 특히 잦은 출장으로 인해 학급 종례를 못하는 일이 많았던 점이 어려웠음을 토로하였다.

한강고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부터 실시할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위해 2001년에 가조사와 전반적인 밑그림 그리기, 그리고 2002년에 본격적인 학생 수요 조사 등의 교육과정 편성 준비 작업을 거쳤다.

나.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작업이다. 특히 교사들의 진출입이나 담당 과목, 학년 등이 관련되므로 많은 교사들의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관심의 집중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2: 19-21).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학생 희망에 따른 교사 수급, 단위 배당, 교사 1인당 수업 시수, 학급 편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편성 과정을 공개할 경우 교사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논란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과협의회도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 2월에는 교과당 수업 시수나 비정기적 교사 진출 등으로 인해 불만을 표시하는 교사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 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의 전 과정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02학년도에는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와 희망 조사를 하였고, 학생의 선택 희망 과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번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 다시 통계 처리를 하였다. 또한 각 과목의 선택 과목 선정 과정에서는 교과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교과 부장과의 협의를 거쳤다.

1) 학생 희망 조사와 반영

김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물론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수차례의 희망 조사, 변경 내용의 반영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와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교사의 수급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일이었다.

김(김교사): 음...6차때보다는 7차때 교사 수급을 제가 우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서는 거의 쫓았니까... 왜냐면 7차가 되면서 많이 달라진 게 체육, 음악, 미술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한 단위씩 줄어들었거든요. 서울시 전체가 교사가 남아돌고, ... (중략) ... 기술·가정도 교사가 남아돌고...그러다 보니까 그 교사가 굉장히 많이 남아...학교별로...한 명이나 두 명, 세 명...교원 같은 게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한 과목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교사가 세 명이나 됩니다 학교별로, 그죠? 그 세 명을 일단 학교에서 다 처리를 해 줘야 되고, 우리 학교 다 줄었다고 보내면 그 분들 다 어디 갑니까 서울 시내 전체로 볼 때...그래서 있는 분들은 최대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 선택을 최대한 해 주되...교사 수급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또한 각 과목을 몇 단위씩 몇 학년에 배치하는가 역시 교사의 관심이 집중되는 첨예한 문제로서 최대한 공정하게 조정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김 교사의 방책은 교과 부장들을 소집한 회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교과 협의회를 통해 결정을 해 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2) 학급 배정과 시간표 편성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동 수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강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강고등학교는 이동 수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급별 선택 과목의 조합을 결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업이 발생하였다. 이동 수업은 일종의 필요악이 된 셈이다. 이동 수업을 위해 한강 고등학교는 교과 교실도 몇 개 확보하고, 학급 출석부와는 별도로 이동 수업 출석부를 마련하여 관리하였다.

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과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작년에 지금 2학년 아이들 선택하는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과정에 따라서 제2외국어는 중국어, 불어 중에 선택을 하고, 애들이...기술·가정은 가정하고 공업 중에 선택을 해요. 체육, 음악, 미술은 체육, 음악, 미술 중에 선택을 해요. 우리 사회 과목은 법과 사회하고 경제 중에 선택을 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반을 짜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반을 나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때 반을 나눌 때, 선택과목이 공통적인 거는 공통적인 거끼리 반을 모아줬죠, 중국어, 가정, 체육, 경제 하는 애들, 아니면 불어, 가정, 미술, 경제 하는 애들, 이렇게 반을 다 모아주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반은 선택과목이 똑같은 애들도 있고, 그죠? 몇 개 반이

선택과목이 똑같으면 그 반이 이동 수업을 할 필요가 없지? …(중략)… 그답, 부득이 하다 보니까 선택과목이 똑같은게 안 나오고 어중간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와 같은 반만 묶어 가지고 이동 수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법과 사회는 아홉반 중에서 순수하게 경제만 나온 반이 음, 세 반이고, 순수하게 법만 나온 반이 한 반이고 그래요. 그 나머지 …(중략)… 여섯반을 둘둘씩 묶어가지고, 두 개 두 개를 동일한 시간에 안배를 해서 그 시간만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중략)…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제2외국어, 기술가정, 체육, 법과 사회 이거 네 개 가지고 선택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의 이동 수업이 많은 반도 있고, 적은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이동 수업 출석부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교실도 이동 수업을 위해서 몇 개 더 확보를 했고….

3)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의 공개 및 교사 참여

한강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생길 것으로 우려했던 침해한 이익 대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불만도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 김교사의 판단이다.

김: 교육과정 짜는 걸 완전히 개방을 시켜놓고, 언제든 누구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굳이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아도 되고, 또 특정한 과목을 유리하게끔 2학년 3학년 안배를 하고. 그런 일은 안 했겠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짜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학년 안배할 때 각 교과에서 몇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그렇고..그래서 이 교과 이렇게 넣었을 때 교사 수급 관계 따져보고, 또 수능관계 따져보고..아이들 공부하는 과목 수 따져보고..이렇게 해서 각 교과에서 안이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각 교과는 최대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짤 수밖에 없죠. 다들 교과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다 3학년 넣고 싶어하고 어떤 과목은 2학년때만 넣고 싶은 과목도 있고, 그것을 교무에서 교감이나 교무부장이나 교무기획이 조정을 해 줘야 될거예요. …(중략)… 우리같은 경우는 이걸 할 때마다 몇 번씩 조정을 했어요. 또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니까 대여섯 번 조정 한 거 같애. 여기 있네 어디. 이거 같은데 …(중략)… 작년에 요걸 4월달에 한 번 조정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6월달에 한 번 조정을 하고, 또 7월달에 한 번 수정을 하고, 9월달에 수정을 하고, 마지막 결재를 내고.

2. 사회과 선택 과목의 편성 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는 10학년에 국사 4단위를 포함한 사회 10단위와 11, 12학년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인간 사회와 환경,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9개 과목이 있다. 사회 교과는 이처럼 역사, 지리, 일반 사회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타 교과와 다른 면이다.

가. 사회 교과 의 특수성

사회과의 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단일한 영역으로 구성된 타 교과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는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진 점에 기인한다. 어떤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느냐가 각 하위 영역의 교사 수급과 교과 위상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강고등학교의 경우, 역사와 지리 영역에서 교과협의회를 거쳐 각각 한 과목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하여 2학년에 배치하고, 역사와 지리 중 한 과목을 3학년에서 선택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일반 사회 영역의 경우, 4개의 선택 과목에 대해 교과협의회를 거쳐 두 과목씩으로 묶은 후 2, 3학년에서 각각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국 2, 3학년의 2년 동안 일반 사회 영역은 2과목, 역사와 지리 영역은 각각 1.5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셈이다.

김: 아이들 선택 단위가 28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단위 이상 해주면 되고... 물론 여건이 되면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를 한 개씩은 필수로 했어요. ... (중략) ... 지리와 같은 경우에는 정하라고 했드니만, 한국지리를 필수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그담..역사쪽에서는 세계사를 필수로 하겠다고 그러고...

연(연구자): 네.... 그러면? 일사에서는?

김: 일사에서는 과목이 네 개잖아요? 뭘 필수로 해? 그래서 우리는 둘둘로 해 가지고 선택을 맡길 때... 법하고 경제 중에 한 개 선택, 정치하고 사회문화 중에 한 개 선택... 뭘 선택을 하나 몽땅 우리 꺼니까 일반사회 꺼니까...

연: 음... 아... 그러면 법이랑 경제, 정치랑 사회문화 이렇게 묶는 거는 그럼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거예요?

김: 그렇죠. 교과협의회...에서 단위수 고려해서 정하는 거죠.

이러한 영역별 과목 배당에 대해 각 영역의 교사들이 수궁한 근거는 대체로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혹은 현재의 교사 수급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손해볼 것이 없는 결정이라는 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지리하고 역사는 다 해서 1.5과목이고 일반 사회는 2과목이 되는 거죠.

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리, 역사 쪽에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김: 오히려 지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고마웠죠. 그 아홉과목 무조건 다 섞어놓고 선택을 시켰으면은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치나 사회문화 이런 일반 사회 쪽으로 많이 몰렸을 거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역사와 지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리하고 역사를 한 과목 필수로 해줌에 따라서 그나마만큼 교사 확보가 된 거거든. 그 동안 역사 지리 같은 경우 우리가 단위가 기본이 8단위 아님 6단위잖아요. 그거 한 과목만 선택해줘도 교사 수급 관계가 두 명, 세 명은 카바가 되는 거거든.

나. 학생 선택 희망 과목 조사

한강고등학교에서는 2001년 가조사를 통해 수집한 학생 희망 선택 과목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교사 수급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지정 과목이라는 하위 정책을 이용하였다. 즉, 역사와 지리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씩 학교 지정 과목으로 선정하여 2학년에 배치하고, 일반 사회 영역에서 두 과목을 묶어 그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3학년에서는 역사와 지리 영역에서 한 과목을, 일사 영역에서 두 과목을 묶어 그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이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 조사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친 과목 안내를 하였다.

김: 안내,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일단, 3월초에 학부모들에게 학부모교육을 했어요.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 학부모총회때요?

김: 네..총회때. 그 답에 4월 5월 두 달동안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7차 교육과정 설명을 해요. 책자도 만들었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책자 만들고, 또 선택과목에 대한 책자 만들고 ... (중략) ... 우리 교육과정계에서 만들었지 일단은 교육부에서 만든 거 있고, 교육청에서 나온 거 있고, 그 자료들 조합만 하면 되니까 그거 만들고, 또 아이들..문과 같지 이과 같지 정해야 되니까 각 학과와 그에 따른 진로에 대해 책자 만들고 그걸 묶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책자 가지고 4, 5월달은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몽땅, 방송으로. 답임이 하기도 하고. 그걸 아마 제가 3번 정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다. 사회과 과목별 단위 수와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0과목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01: 46). 이수 과목 수는 각 과목의 단위 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목당 이수 단위가 적으면 당연히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김재춘, 2000: 185). 그러나 한강고등학교에서는 원만한 교사 수급을 위해서 단위 수를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기준치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연: 근데, 진짜 이거 8단위, 6단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8단위 6단위 이게...선생님 학교에서는 8단위 6단위씩 해요, 정말?

김: 어... 일단 우리가 2학년때는 이 과목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교육청 지침에 따르면은 한 학년에 이수할 과목을 열 과목이나 열두 과목 사이로 하라고 그랬어요. 열 과목 내지 열두 과목 사이로 하게 되면은 첫째 단위수가 몽땅 8단위로 하면 딱 맞을거야.

연: 선택과목?

김: 선택과목, 일반과목 다 합쳐가지고... 한 학년에 이수할 과목이... 한 학기에 이수할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다 단위수가 4단위씩이에요, 그죠? 4단위짜리로 하다보니까 이 건 도저히 다 충족이 안돼. 그래, 이왕 포기한 거 우리같은 경우에 8단위는 좀 많은 거 같애. 그래서 6단위로 줄였습니다. 이거 6단위로 줄였는데.. 줄였고, 법하고 경제는... 어... 6단위를 4단위로 줄였습니다. 이거 기본 단위가 6단위였죠? 6단위에서 4단위로 줄였고... 그 답... 요건 8단위인데... 6단위로 줄였고... 이렇게 줄인 이유는 뭐냐하면은 지리하고 역사하고 줄이다보니까 교사... 학교에 일반사회가 다섯 명이었고, 역사가 네 명이었고, 지리가 두 명이었어요. 교사 수급 관계가 안 맞아. 8단위로 하게 되면은 사회과 교사가 엄청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단위씩 했었는데 정치하고 사회문화 이런 거 전부 다... 다 8단위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단위수를 6단위로 줄였어요. 6단위로 줄였더니만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과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가 네 명, 네 명, 네 명 딱 맞아요.

라. 사회과 각 과목의 학년 배치

교사 수급과 더불어 큰 관심사가 각 과목의 학년 배치이다. 이에 대해 한강고등학교는 학교 지정 과목을 2학년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학교 지정 과목을 각 교과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각 교과에서는 대학 입시나 교과의 입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목의 학년 배치를 결정하였다.

연: 아 그럼, 정치하고 사회문화... 그러면은, 3학년때 결국은 지리, 역사, 일사중... 아 잠깐만, 일사는 한 과목을 하는 거죠?

김: 네, 일사 한 과목 하고, 지리, 역사중에 한 과목 하고,

연: 네, 이게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때 많이 선택하고 그런 걸 생각해서 3학년에 배치를 하신 건가요?

김: 대부분 다, 지리같은 경우엔 보니까 자기들 내에서 한국지리가 다른 지리들 가운데에선 핵심이라고 자기들 내에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국지리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수능볼 때 한국지리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짜매드라고. 3학년때 넣는게 유리할까, 2학년때 넣는게 유리할까, 고민고민하다가 필수로 하는 걸 2학년때 하는 것이 시간 수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가 있고, 3월말부터 2월말까지 다 온전한 시간이 되니까, 또 2학년때 해봤을 때 아이들이 쉽게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지리같은 경우는 수능을 대비해서 2학년때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반사회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은, 사회문화하고 정치 중에서 좀 아이들 선택을 많이 했죠.

3. 제6차의 교사 수급과 제7차의 학생 선택권의 접점

학교 현장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연 학교 여건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학교 여건이라 함

은, 과목 선택이 가능한 최소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이며, 과연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반영한 시간표의 편성이 가능한가, 그리고 대다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혹은 외면할 가능성이 있는 교과목의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로 축약된다. 다시 말해 교사 수급 제도는 제6차 교육과정과 다름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가. 학생 선택권 존중 요구와 기존의 교사 수급 제도의 마찰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 가운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편성하도록 한다는 것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선택 과목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의 희망을 조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수시로 변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재조사하여 교육과정을 수정하였다.

문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 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것이 교사 수급이라는 측면인데, 김태훈 교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할 것은 원만한 교사 수급이라고 보았다. 이 때 원만한 교사 수급이란 기존의 과목당 교사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교사 수급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회과와 같이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교과와 경우에는 각 영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태훈 교사는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있어 뜨거운 감자였던 교사 수급의 문제를 학교 지정 과목의 활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사회과의 경우 학생이 2, 3학년의 2년 동안 이수할 총 5과목 가운데, 학교 지정은 2과목, 학생 선택은 3과목으로 교사 수급과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였다.

나. 제6차의 교사 수급 여건 내에서 제7차의 학생 선택권 수용

한강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11, 12학년에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학교 여건 즉, 교사 수급, 교실 현황, 학급 편성 및 시간표 배정 등의 한계 내에서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선택 과목 개설에 주력하였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택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게 공개되었고 교과 협의회의 형태로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민주화는 사회과와 같이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교과와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를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각 하위 영역의 원만한 교사 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과정 편성 방안을 교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현재의 학교 여건 하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마련된 것이 학교 지정 과목이다. 학교 지정 과목은 학생들의 ‘카페테리아 교육과정’ 편성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기존의 교사 수급에 큰 무리가 빚어지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적절히 이용되었다. 또한 학교 지정 과목 선정을 비롯하여 과목별 단위 수의 조정 및 각 과목의 학년 배치 역시 교과 협의회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편성을 추구하였다.

IV.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이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 되었다. 김태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 실무자 1인이 독단으로 그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김태훈 교사는 필요할 때마다 교과 부장 회의를 소집하여 교육과정 편성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교과 협의회를 통해 각 교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오도록 하여 그때그때 조정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공개와 교사 참여의 보장은 교사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불식할 뿐만 아니라, 제6차 교육과정 시기와 동일한 여건 내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수단이 되었다.

1.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인식: 선택과 포기

국가 수준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취지를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실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편성되고 운영되는가가 달라지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맡았던 김교사의 판단을 중심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적인 것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 포기할 수도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나뉘어진다.

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김 교사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인정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할 것이 교사 수급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교사 수급 고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와 같이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과와 경우 학생들의 선택이 어느 한 영역에 집중될 경우 교사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 우려된다. 김 교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원만한 교사 수급 조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교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고려하며 학교 내에서 각 하위 영역의 교사들 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원만한 교사 수급과 각 영역 간의 균형이란,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던 시기의 교사 수 및 비율이라는 점은, 정기 인사 이동 외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교직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 교사는 ‘학교 지정 과목’이 교사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각 교과와 전문가인 교사가 지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카페테리아 교육과정’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학교 현장의 시각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교사 수급의 대폭 조정을 전제로 한 학생 선택권의 완전 보장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교사 수급 제도 내에서의 학생 선택권 존중이라 할 수 있다.

나.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김 교사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인정이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조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각 교과목에 대한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아직 미성숙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여 그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미 선택한 사항이라도 학생의 마음이 바뀌면 가능한 한 변경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태훈 교사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만큼이나 교사 수급과 교사의 교과목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100% 인정하게 된다면 교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며, 학생들이 특정 하위 영역의 교과만을 편식하듯 이수하게 되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았다.

김 교사는 ‘학생 선택권 존중’과 ‘원만한 교사 수급 조정 및 교과 하위 영역 간의 균형 있는 이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 지정 과목’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교사는 이와 같이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인정은 해야 하는 일로 판단했던 반면, 이수 과목 수의 기준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학교의 교사 수급 여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선택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어야 할 곳은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바로 그 학교 현장이다. 물론 새 교육과정의 시행 과정에서 학교의 여러 여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는 하나 일단 시행 초기에는 기존의 여건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가. 교사 수급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던 시기에 사회과의 각 하위 영역의 교사 비율은 대체로 역사나 지리 영역에 비해 일반 사회 영역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교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동수 비율을 추구하는 것이 각 영역의 반발을 막고, 각 영역 교사들 간의 원만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한강 고등학교의 경우는 후자, 즉 각 하위 영역 간의 동수 비율로 나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나. 학급 배정 및 시간표 편성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2, 3학년 학급은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그리고 제2외국어에 따라 이를테면 독일어 반, 불어 반으로 구분하여 4가지 종류의 과정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한강고등학교의 2003학년도 2학년의 경우, 제2외국어, 기술·가정, 예체능, 일반사회 선택 과목 등 4가지 교과에 대해 학생 선택을 반영하여 학급을 구분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 학급이 구성되려면 각 선택지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과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작년에 지금 2학년 아이들 선택하는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과정에 따라서 제2외국어는 중국어, 불어 중에 선택을 하고, 애들이...기술가정은 가정하고 공업 중에 선택을 해요. 체육, 음악, 미술은 체육, 음악, 미술 중에 선택을 해요. 우리 사회 과목은 법과 사회하고 경제 중에 선택을 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반을 짜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반을 나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때 반을 나눌 때, 선택과목이 공통적인 거는 공통적인 거끼리 반을 모아줬죠, 중국어, 가정, 체육, 경제 하는 애들, 아니면 불어, 가정, 미술, 경제 하는 애들, 이렇게 반을 다 모아주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반은 선택과목이 똑같은 애들도 있고, 그죠? 몇 개 반이

선택과목이 똑같으면 그 반이 이동 수업을 할 필요가 없지? ... (중략) ... 그답, 부득이 하다 보니까 선택과목이 똑같은게 안 나오고 어중간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와 같은 반만 묶어 가지고 이동 수업을 해주면 되죠.

학급 배정과 함께 시간표 편성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동 수업이 여러 과목에서 나오게 될 경우 시간표 편성이 까다로우며, 가까스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의 출장이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인한 시간표 이동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학급 배정과 이동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경우와 같이 공장 시간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크기의 교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수의 학생들이 신청한 과목도 개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교사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제한적으로 존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 공개와 협의

학교 현장에서는 국가 수준 혹은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결정 사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김태훈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의도를 수용하고, 이를 현재의 여건에 맞게 실현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십분 활용하는 현장의 지혜를 보였다. 김 교사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데 사용한 지침은 학교 지정 과목의 운영과 교과 협의회의 활용,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과정의 과감한 공개였다.

1) 학교 지정 과목의 활용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 수급이나 학생 선택의 혼선 등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시·도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지정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 김 교사는 교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지정 과목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교과별 학교 지정 과목의 선정을 각 교과에 맡김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과 협의회의 실질적 활용

많은 학교에서 교과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도 하지만, 한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성의 실무자가 교과 부장 교사들을 소집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

하고, 교과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교과의 의견을 수렴해 오도록 함으로써 교사가 참여하여 편성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판단력 부족에서 오는 그릇된 선택을 보완하고, 교과 내 하위 영역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3) 교육과정 편성 과정의 공개

김 태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주체들 즉,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기서 ‘공개’라 함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와 안내를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공개를 의미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그 편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제7차 교육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교육과정 편성 과정의 공개 및 교사 참여의 보장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인의 교육과정 편성 실무자가 독단으로 편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교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V. 맺음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관련 문서와 시·도 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안내 자료,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담당한 실무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수준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도 교육청의 지침이라는 깔대기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물로 나오기까지, 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맡은 담당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새 교육과정에 대한 수용 정도, 그리고 학급 배정 및 시간표 편성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김태훈 교사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나아가 자신만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동료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려 떠다니기보다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사 수급의 문제와 쉬운 과목으로의 편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김 교사의 이러한 역할은 한 교과의 담당 교사로서, 그리고 한 학급의 담임 교사로서의 역할과 함께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커서 교사의 본분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김 교사가 중시한 학생 선택권 존중과 교사 수급의 원만한 조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의 기준을 초과하여, 교사의 노하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현재 시행 초기인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애초부터 이동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표 편성을 전제로 학생들의 과목 희망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과목들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하고, 이마저도 몇 개의 교과목을 묶어서 그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교사 수급에 학생 희망을 맞추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 연구에서처럼 가능하면 학생들의 희망과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교도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하나의 전체로서 설명하고자 하지 않으며, 그 중 교육과정 개정 의도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 학교의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무시되는가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비판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국가 수준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그 개정 의도가 어떻게 해석되고 반영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 현장에서 교사는 일차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지혜를 발휘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와 최초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취지 사이의 간극에 대하여는 교육행정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개선 방안**.
- 교육부(1998).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a).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운영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2002b). **선택중심 교육과정 학부모 안내자료**.
- 김재춘(2000).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증보판. 서울: 교육과학사.
- 박윤경(2003).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143-172.
-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2002). **단위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 자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2001). **제7차 교육과정 적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서울특별시교육청(2001). **제7차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해**.
- 서울특별시교육청(200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센터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편(2003).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주문진고등학교(2000).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부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센터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편(2003). **제7차 교육과정의 체제적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개발원(1996). **교육과정 2000 연구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연구보고 CR96-30.
- Goetz, J & Le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 논문접수 : 2004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4년 5월 19일 / 게재 승인 : 2004년 6월 7일

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Eun-Ok Joo

(Teacher, Kwan-ak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case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idea of high school selective-centered curriculum is applied in the social studies school curriculum. Data were collected through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school curriculum documents, and in-depth interviews.

I set up two questions for this study; 1) how the high school selective-centered curriculums is organized in the school curriculum, and how the intention of revision is reflected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school scene.

Through the data analysis, I found that 1) he(she) harmonized school-designating subjects and students-selecting subjects, 2) he(she) laid weight on keeping the balance of students' right to select subjects and demand and supply of teachers, and 3) he(she) decided school-designating subjects in the teacher meeting.

Through this study, I found how the idea of student selection-centered curriculum is applied in the social studies school curriculum. Teachers satisfied the demands of national curriculum successively in their judgement.

Finally I suggest that more and more study on practical knowledge of teachers.

Key Words : high school selective-centered curriculum, social studies curriculum, school curriculum, school-designating subjects, students-selecting subjects